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활동 보고

○ 2003. 1

2002년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제안으로 논의되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장애인계 모두의 요구임 확인되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장애계 연대기구의 출범이 요구되어 47개 단체가 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를 구성, 범장애인계 연대기구의 출범을 준비함

○ 2003.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장애계 연대회의 연대명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확정

○ 2003. 2월~3월

57개의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목적 및 조직구성

○ 2003. 4. 15

프레스센터에서 58개의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을 가짐

○ 2003.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범국민캠페인 활동전개와 함께 장애인계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추련내 장애인, 현장활동가, 법조인 30여명으로 구성된 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추련의 법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시작함

특히 법안을 총칙, 차별금지, 기구, 권리구제 등의 구성안을 참작하여 총칙기구팀, 차별금지팀, 권리구제팀 3개의 팀과 장애여성의 차별과 권리영역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팀을 포함 총4개 팀으로 구성하여 법안마련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 2003. 4. 20.

종묘공원에서 인사동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및 거리문화행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임

○ 2003. 5.16. '장애인차별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와 6.25.

장애인차별실태와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차별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 그리고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려냄

○ 2003. 7.28~8.9

제3회 장차법 제정을 위한 전국 국토순례를 제주에서 가짐

○ 2003. 7.9~10.29

장추련 내 법제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법안의 주요내용을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9차례에 걸친 연속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해옴

○ 2003. 11월~2004년 3월

법제정위원회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재구성하여 15차례에 걸쳐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옴

○ 2004. 3. 15~3.20

법제위를 통해 기존에 제안되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으로 최종 정리해냄

○ 2004. 2. 5

법제위의 법초안을 집행위원회에서 대외적 워크숍을 통해 공개할 것을 결의함